

---

碩士學位請求論文

青少年的老父母扶養意識에 관한 研究

-濟州道 中·高等學生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惠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申 順 善

1997년 2월

# 青少年的老父母扶養意識에 관한 研究

-濟州道 中·高等學生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申 順 善

申順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金良順  
審査委員 한항영  
審査委員 金惠淑



<초록>

靑少年의 老父母 扶養 意識에 關한 研究

- 濟州道 中·高等學生을 중심으로 -

申 順 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연구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노부모 부양 체계의 유지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노부모 부양 태도 및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사이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가.

연구 방법은 질문지 조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중학생 290명, 고등학생 270명, 총 560명이다.

노부모 부양 의식에 대한 측정 도구는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chi^2$  (Chi-square)검증,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부모 부양 의식도

전체적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총 150점 만점에 127.82점으로 나타나 높은 부양 의식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등이다.

---

\* 이 논문은 199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부양 형태별로는 경제적 부양 의식이 가장 높고,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 정서적 부양 의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 의식에서 출생 순위, 노부모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정서적 부양의식에서는 조부모와 동거경험, 부모의 양육 태도, 노부모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유의미 하였다.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에서는 연령, 노부모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노후 피부양 태도,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 (2)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 및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는 동거부양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변수에 따른 노부모 부양 태도의 차이는 성별, 부모 양육 태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피부양 태도에서는 대부분 청소년 자신의 노후에 경제적 부양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식인 자립심을 보였다. 변수에 따른 노후 피부양 태도의 차이는 성별, 연령, 조부모와 동거 경험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3)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와의 관계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의 관계에서는 피부양 기대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노부모 부양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에 만족할 수 있는 부양을 위해서 개인 및 가족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노인 부양 정책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을 책임질 성인 자녀와 노인 세대들의 충돌을 피하면서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부양 방법을 강구하여 정서적 부양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청소년은 미래의 노부모 부양자이면서 본인도 결국은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目 次

국문초록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 問題	3
II. 理論的 背景	4
1. 靑少年의 特性	4
2. 靑少年의 老父母 扶養 意識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8
3. 老人의 概念	14
4. 現代 社會에 있어서의 老人扶養 問題	16
5. 老人 扶養의 形態	21
III. 研究의 方法	27
1. 調查 對象	27
2. 調查 期間	28
3. 測定 道具	29
4. 資料 處理 및 分析 方法	31
IV. 結果 分析 및 論議	32
1. 調查 對象者의 一般的 背景	32
2. 老父母 및 自身의 老後에 대한 態度 및 責任 意識	33
3. 背景 變因에 따른 老父母 扶養 意識度	36
4. 靑少年의 一般的 背景에 따른 老父母 扶養 및 自身의 老後 被扶養 態度	42
5. 老父母 扶養 態度와 自身의 老後 被扶養 態度와의 關係	46
V. 結 論	47
참 고 문 헌	51
Abstract	55
부 록	58

## 表 目 次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	17
<표 2> 제주도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 .....	18
<표 3> 주 수발 담당자 .....	25
<표 4> 1995학년도 제주도 중·고등학생수 .....	27
<표 5> 표집 대상자의 학교별, 성별, 지역별 분포 상황 .....	28
<표 6>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수 .....	29
<표 7> 문항의 신뢰도 계수 .....	30
<표 8>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32
<표 9> 노부모 부양 태도 및 책임 의식 .....	34
<표 10>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 .....	35
<표 11> 노부모 부양 의식도 점수 .....	36
<표 12>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	37
<표 13> 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	39
<표 14> 부양 책임의식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	40
<표 15>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	41
<표 16>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	42
<표 17>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태도 .....	43
<표 18>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	45
<표 19>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와의 관계 .....	46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 나라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산업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평균수명을 연장하여 노인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가치관이 변화되어 노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노인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존경을 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1)</sup>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빈곤, 역할상실, 고독이나 소외, 노쇠현상으로 인한 심신의 쇠퇴 등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관리의 문제 등<sup>2)</sup>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노인들은 가족의 최고권위자인 동시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노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으며, 노인 부양은 동거가족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왔다.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부양형태이며, 이상적인 부양형태로 평가되고 있는데,<sup>3)</sup> 그것은 곧 가족 내에서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 서비스 부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전통적 가족 규범을 붕괴시켰고, 새로운 서구 지향적인 가족관이 우리의 보편적 가치로 등장함에 따라 가족부양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일부 가정 또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서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오늘날에는 노인 부양의 범위가 종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1) 김정휘(1984),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p. 69.

2) 박재간(1991), 「노인과 지역사회」, 제2회 노인복지세미나, 한국노년학회, p. 6.

3)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 1.

부양체계에서 공적 부양체계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구의 복지 국가들은 노인 복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다루면서 연금, 의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여 공적 부양체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국가 자원을 이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8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복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노인 복지 정책을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의 쇠퇴가 노인 부양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노부모 부양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삶의 한 단계라는 점을 깨닫게 해 주고, 현대적 시각에서 '경로효친'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유형인 직계가족과는 다른 핵가족의 형태를 산업화 과정 이전부터 취해왔다. 전통적으로 노인 스스로 자녀들과 별거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비록 장남이라 할지라도 별거를 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다.

김혜숙<sup>4)</sup>의 시모(媣母)와 자부(子婦)를 대상으로 동거 및 분가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한 시모는 서울이 69.2%이고, 제주가 40.0%로 나타나 서울과 제주와의 동거의식에 차이를 보였다. 즉 제주의 시모인 경우는 60.0%가 별거를 희망했고 또한 자부들은 66.6%가 노후에 별거를 희망함으로써 제주도 노인들이 서울에 비해 별거 경향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장남이라도 결혼 직후 즉시 분가시키겠다는 경우가 시모(65.5%)나 자부(64.7%)가 모두 높아 도민들의 분가 경향을 입증해 주었다.

이처럼 제주의 노인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이 적어, 육지 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고독 및 소외라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덜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매스컴의 발달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 유대감이 약화되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들의 경제력이 떨어짐에 따라 빈곤

4) 김혜숙(1984),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7집, pp. 138-139.



노인층이 증가되어 제주도내에서도 노인 부양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 의식을 조사하여 제주도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제주도 청소년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제주도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부모 부양 체계의 유지 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현시대에 적합한 노부모 부양 체계를 개발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研究 問題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노부모 부양 태도 및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사이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가.

## Ⅱ. 理論的 背景

### 1. 靑少年의 特性

靑少年기는 한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하여 하나의 완숙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사춘기가 짧았으며, 성년식이나 성인식을 거친 후로는 곧바로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sup>5)</sup> 그러나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靑少年은 신체적으로는 빨리 완숙하는데 비하여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교육이나 직업적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靑少年기는 사회가 산업화, 전문화되면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 학자에 따라靑少年의 시기 구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

E. B. Hurlock의 발달심리학적 구분에서는 11~12세부터 21세까지를靑년기로 보면서 그 시기를 전靑년기(Preadolescence),靑년전기(Early Adolescence),靑년후기(Late Adolescence)의 세단계로 분류하였다. 전靑년기는 11세와 13세 사이로써 약 1년간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는 시기이며,靑년전기는 14세부터 16~17세로 중·고등학교 시기와 일치하며, 이따금 행동에 조화를 잃은 시기(Awkward Age)라고 칭하기도 한다.靑년후기는 17~18세부터 21세까지로써 대학 시기에 해당하며, 과시의 시기(Show of Age)라고도 한다.<sup>6)</sup>

장병림<sup>7)</sup>은 교육적 견지에서 구분한 E. L. Thorndike의 분류에 따라 12세경부터 21세경까지를靑년기로 보고, 이것을 다시 과도기,靑년전기,靑년후기의 3기로 나누었다. 과도기는 아동기와靑년기와의 사이의 12세경부터 약 1년간이며,靑년전기는 13세에서

5) 이광규(1992), 「가족과 친족」, 일조각, pp. 53~55.

6) 장병림(1985), 「靑년심리학」, 법문사, pp. 63~65.

7) 장병림(1985), 상계서, pp. 64~65.

부터 17세경까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고, 청년후기는 18세경부터 21세경까지의 대학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시기는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대학 시기까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ickson은 청소년기를 심리·사회적 발달의 제 5단계로서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형성기라고 하였다. 정체감의 형성은 신체 특성, 욕구, 능력, 동일시, 방어, 승화,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구인들이 그 개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져 나간다. 또한 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적 측면 못지 않게 사회적인 측면이 관여한다. 이 시기의 청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나 성적 충동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미래 위치에 관하여 걱정하기 시작한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정신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에 압도되어 버리기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8)</sup>

청소년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어, 심리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이 시기는 단순히 신체적·생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며, 이 때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인간형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sup>9)</sup>

청소년기는 흔히 제 2의 탄생을 맞이하는 시기라고 한다. Rousseau도 그의 저서 「에밀」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두 번 태어나게 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한 번은 종족(인간)으로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였듯이, 이처럼 청소년기는 인생의 재출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정신과 생활양식의 재체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제2의 탄생으로써의 청년기는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지니게 되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자아의 탄생을 들지 않을 수 없다.<sup>10)</sup>

8) 이춘재 외(1993), 「청년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pp. 117~120.

9) Rolf. E. abtm(1981), 「청소년 이론」, 송중두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p. 1.

10) 정인석(1988), 「신 청년심리학」, 대왕사, p. 65.

청소년기에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며, 자기주관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보는 이상 세계의 발견인 것이다. '내면에도 또 하나의 소유주가 있다'고 하는 자기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 목적과 가치 기준 하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한다.<sup>11)</sup>

청년기의 자아 의식의 심화와 인식 기능의 발달은 생활 전면에 걸친 가치 의식을 급격하게 발달시켜 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항상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인생의 가치와 의의를 음미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나에 의해서, 또 그들이 어떤 대상, 어떤 생활 의식에서 보다 유익한 만족을 얻었느냐에 의해서 인생관의 유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개념화시키고 가족보다도 친구, 동료 집단, 교사와의 동일시에 초점을 두면서 생활 양식의 의식적인 변화를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가정에 대한 견해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이 되며, 부모·형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부모에 대한 의존적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의 판단에 근거하여 독립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존 - 독립의 갈등'이 생겨나 부모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12)</sup>

청소년의 부모와 가정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성장하는 가는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가장 설명이 잘 될 수 있다. Bandura는 청소년이 주위환경의 중요한 인물들(부모, 형제, 스승등)이 보여주는 행동을 모방하고 그의 가치관과 인격을 내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sup>13)</sup>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동기의 상, 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평등한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재체계화하게 되는데, 첫째, 좌절과 불안이 잠재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며, 둘째, 자기의 존재, 위치, 역할을 탐색하고 실험하여 정향적(定向的) 발견을 이루는 자아발견의 발달과업을 이루며, 셋째,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 즉 욕

11) 정인석(1988), 상계서, p. 66.

12) 정인석(1988), 상계서, p. 189.

13) 이신숙(1995), "현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과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 학회지」, 제7권, 제1호, p. 60.

망과 집착 사이를 왕래하는 모순적인 양향성(兩向性)의 감정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향성의 감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고 청소년 자신도 방황하며 부모와 교사도 지도상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된다.<sup>14)</sup>

우리 나라 가정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외래문화의 도입과 기계문명의 영향으로 다스의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부모의 자녀 교육 태도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족의식 및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sup>15)</sup> 오늘날의 가정 및 학교 교육에서 조장되어 온 개인주의는 개인의 지적인 향상만을 절대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비사회적 풍토에서 배타적인 경쟁의식과 자기중심적 분위기를 만들며 성장해 온 청소년들에게 전통적 방법의 노부모 부양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심한 갈등과 저항을 느끼게 할 것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화된 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는, 권위의 상징이자, 예절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해 온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데다가, 그 역할을 대신할 부모들이 온정주의, 관용주의에 빠져 예절교육을 도외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형화, 과밀화된 학교에서의 예절교육은 사실상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6)</sup>

임장순<sup>17)</sup>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노인에게 대체로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며, 노인과의 동거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나타났다.

차용은<sup>18)</sup>은 전북지방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노인과의 접촉이 많거나 가정교육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일수록 보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곽필선<sup>19)</sup>은 고등학생의 노인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노인문제에 있어서 심리학

14)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4호, p. 206.

15) 박준희(1971), '서울시민의 자녀교육태도 考', 「논총」, 제17집, pp. 235~272.

16) 정세구(1985). "경로효친과 현대윤리와의 갈등과 그 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pp. 164~166.

17)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 32.

18)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 논문집 제9집, p. 242.

19) 곽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 47.

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노인문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영숙<sup>20)</sup>은 청소년들은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가족중심적인 태도가 낮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족중심적 태도를 강하게 보였다고 밝혔다.

최준혁<sup>21)</sup>은 청소년들에게 노인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원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장래를 밝고 희망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변화시키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됨을 부정할 수가 없다. 청소년기는 자신에게도 소중한 시기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도 소중하다. 가정과 사회의 미래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靑少年의 老父母 扶養 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

청소년들의 노부모 부양 의식은 그들이 속한 여러 내적·외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출생 순위, 조부모와 동거 경험,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부모의 종교 등 9개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性

성이란 생물체에 있어서의 기본적 차이를 일컫는 것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귀속적 속성이며, 성의 구별은 다양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sup>22)</sup>

20) 정영숙(1990).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 18.

21) 최준혁(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대학교 교육대학원, p. 44.

인간은 성별과 같은 기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역할을 차별적으로 부여받는다. 따라서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발달 정도나 적응양식은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경애<sup>23)</sup>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서병숙<sup>24)</sup>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 부양 의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인혜<sup>25)</sup>와 임한순<sup>26)</sup>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연령

중·고등학생 시기는 청년 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중·고등학생의 연령의 차는 몇 년에 불과하지만, 연령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및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즉 연령은 단순히 인간생활의 생물학적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그 연령의 사람들이 수행하는가를 필연적으로 지시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sup>27)</sup>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연령 차이에 의해 노부모 부양 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 3) 居住地

도시의 인간관계는 농촌과는 달리 가족적, 혈연적이 아니고 기계적, 공리적 및 일반적이며 온정적이기보다는 합리적이며, 전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이어서 피상적 관계를

22) 유영주(1986), 「신 가족관계학」, 교문사, p. 99.

23) 고경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47.

24) 서병숙(1986), "노후 부모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No.6.

25)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27.

26) 임한순(1992), "농촌 청소년의 老人 扶養意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29.

27) 김태현(1981), 전제서, p. 23.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28)</sup>

이처럼 도시와 농촌에서 인간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요인이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sup>29)</sup>에서 밝혀지고 있다.

#### 4) 出生 順位

Adler는 “형제간의 위치에 따라 가족 안에서 당면하는 문제가 각기 다르고, 그것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sup>30)</sup>고 하며, 출생순위별 인간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에서는 출생 순위에 따라 부모들의 기대와 역할이 달라지면서 각자의 경험도 달라진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태도는 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서병숙<sup>31)</sup>의 연구에서 장남 이외의 자녀보다 장남이 부모와의 동거의식과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고경애<sup>32)</sup> 임인혜<sup>33)</sup>의 연구에서는 장남·장녀의 노인 부양 의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외동인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 5) 祖父母와 同居 經驗

가정은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은 가정의 전통문화 생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의 기초적 문화를 전수받는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하면서 인간적 환경을 풍족하게 해 주며, 청소년들은 조부모와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하고 동경하며 친밀감을 갖게 된다.<sup>34)</sup>

28) 상계서, p. 24.

29) 고경애(1990), 전계서, p. 44.

곽필선(1990), 전계서, p. 49.

황선옥(1993), “서울지역 청장년층들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p. 25.

30) 이형득 편저(1994), 「상담이론」, 교육과학사, pp. 238~240.

31) 서병숙(1986), 전계서, pp. 108~109.

32) 고경애(1990), 전계서, p. 49.

33) 임인혜(1987), 전계서, pp. 24~29.

34) 정영숙(1990), 전계서, pp. 20~21.



조명희<sup>35)</sup>의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하는 고등학생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임장순<sup>36)</sup>의 연구에서도 동거하는 학생이 비동거 학생보다 경제, 가족관계, 심리적인 면 등에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을 함께 표집한 김광숙<sup>37)</sup>의 연구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도, 경제문제 인식도, 건강문제 인식도, 노인의 가족관계, 노인의 심리문제, 노인문제 해결방안 인식도 등에서 모두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6) 父母의 養育 態度

S. Freud는 한 인간의 성격 발달의 주체로서 가정 환경을 강조하였다. 가정은 출생 후 처음 접하는 일차적인 사회집단이며 개인이 인격을 가진 하나의 성인으로 발전하는 사회적·심리적 본거지이다.<sup>38)</sup>

개인의 인성체계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통해 사회체계에 조화롭게 통합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은 부모의 양육 태도 여하에 많이 좌우된다.

이 점에 관해 P. M. Symonds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 대하여 지배적이나 복종적이나에 따라 청소년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밝혔다.<sup>39)</sup> 자녀를 엄격한 권위와 항상 자기 통제하에 돌리고 하는 지배적인 부모 슬하에서 양육된 자녀는 복종적인 부모의 자녀보다도 더욱 잘 사회화되어 예절이 바르고 정중하며, 또 정직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맡겨 두고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복종적인 부모 슬하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권위에 대해서는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어 다루기 힘들지만, 독립적이고 자신이 만만하여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P. Anderson의 연구에서도, 애정 깊은 부모를 가진 중학생에 있어서는 협조적

35)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 62.

36) 임장순(1979), 전제서, p. 54.

37)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 63~64.

38) 이춘재 외(1993), 전제서, pp. 367~368.

39) 장병림(1985), 전제서, pp. 148~149.

또한 P. Anderson의 연구에서도, 애정 깊은 부모를 가진 중학생에 있어서는 협조적이며, 정서면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된 자가 많은데 반하여 지배적인 부모를 가진 학생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이며,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이웃 사람들과 일반사회인들에 대한 태도는 청년의 대인태도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며,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대했느냐에 의해서, 또 부모가 조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가, 무의식 중에 그들의 부모나 손 아래 어린이들에 대하는 행동경향을 규정짓게 된다.<sup>40)</sup>

이처럼 부모의 가정교육이 청소년의 성격 및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준혁<sup>41)</sup>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가족관계, 경제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경애<sup>42)</sup>의 연구에서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집단이 자유로운 집단보다 노인 부양 의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7) 父母의 學歷

부모의 피교육정도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법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sup>43)</sup>

곽필선<sup>44)</sup>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도교육, 자신의 노후에 대한 자식의 부양책임,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0) 정인석(1985), 전계서, p. 194.

41) 최준혁(1992), 전계서, p. 28, p. 35.

42) 고경애(1990), 전계서, pp. 52~53.

43) 정영숙(1990), 전계서, p. 20.

44) 곽필선(1988), 전계서, p. 61, p. 65, p. 69.

## 8) 家屋 構造

제주도의 전통적인 가옥구조는 「안거리·밖거리」모형이다. 한 울타리 안에 침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이 2채가 있는데, 대문에서 볼 때 안쪽에 있는 집을 '안거리',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은 '밖거리'라고 한다. 주로 이러한 '안·밖거리' 모형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父)가족과 자(子)가족이 안거리와 밖거리를 한 채씩 별도로 소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토지의 소유나 경작 등은 물론 취사·세탁 등의 가사 활동 및 기타의 소비 활동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분리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동거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옥 구조에서의 가족은 실체는 핵가족이면서 외형적으로는 3세대 가족, 즉 직계가족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과 별거형식의 특이한 구조로 인하여 노인들은 스스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검소성과 근면성 그리고 자립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별거 또는 친지의 상실로 대인관계가 고독하게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 노인은 한 울타리 안에 주거하므로 고독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김혜숙<sup>45)</sup>의 제주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안·밖거리 구조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하여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므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강하지 않으며, 고부간의 갈등도 낮고, 애정관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한창영<sup>46)</sup>은 안·밖거리 구조에서 조부모와 동거한 청소년들은 비행이 적고, 보다 효율적으로 충효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부양 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핵가족화에서 오는 고독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 '안·밖거리'모형을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김혜숙(1984), 전제서, p. 141.

46) 한창영 (1983), 「경로사상과 노인복지」, 제주: 한일문화사, p. 170.  
(1979), 「제주도노인 논고」, 제주 항일문리사, p. 169.

### 9) 父母의 宗教

종교는 대중의 교화, 특히 도덕적으로 인간을 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어 왔다.<sup>47)</sup>

제주도에서는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종교가 발달되어 왔다.<sup>48)</sup> 이러한 문화형상은 제주도민의 고유한 신앙형태이며, 그 사상이 윤리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모의 종교는 가정생활의 뿌리가 되며 이러한 환경은 자연히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나 그외 가치관, 도덕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 3. 老人의 概念

‘노인’이란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사전<sup>49)</sup>에서는 노인을 ‘늙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심리학이나 생물학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정의하려 할 때는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노령화는 개인이 속한 속성이나 생활 환경 또는 성장과정의 차이에 따라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각 개인은 그들의 노인생활이나 수명을 달리하고, 또 노인들의 활동 양상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는 곤란하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의 시기를 60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sup>50)</sup>, 이 기준은 사회제도적인 여러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엄밀히 말해서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수명을 연륜으로 환산한 시간적 개념에 불과하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과 수명이 연장된 현대사회에서는 다르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개념은 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배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47) 강환국(1975), 「한국 도덕 교육의 이론적 기저」, 법문사, p. 66.

48)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pp. 32~33.

49) 김민수 외 3인 편집(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p. 590.

50)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1984),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 pp. 35~36.

따라서 여기서는 이 연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고 이를 종합하여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한다.

노인에 대한 개념규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구자는 Harvighurst로서 그는 노인을 “일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시기에 있는 사람”<sup>51)</sup>이라고 정의하였으며, Erikson은 자아의 발달과정에 따라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마지막 단계를 노년기라 하고, 자아통합과 절망의 감정이 대립하는 시기로 보았다.<sup>52)</sup>

Breen은 노인을 ①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환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성격이나 정신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sup>53)</sup>

제 2회 국제 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손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체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sup>54)</sup>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 행동면에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 노인의 개념을 사회 과학적 조사 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을 판별할 때는 역연령<sup>55)</sup>을 기준으로 한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에서는 사회 입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노인을 규정한다.

51) 서병숙(1993), 「노인연구」, 교문사, p. 1.

52)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p. 1.

53) Breen. z. Leonard,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ological Gerontology, Edited by C. Tibbit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태현(1994), 전게서, p. 39에서 재인용.

54) 김태현(1994), 전게서, p. 39.

55) 역연령(歷年齡) : 역연령은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일(日)과 시(時)를 과학적, 산술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학교 입학, 선거권 유무, 정년퇴직 시기, 연금 수혜자격 등은 역연령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병숙(1993), 전게서, p. 3.

현재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sup>56)</sup>, 이는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연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격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 시설에의 입소와 경로우대증의 발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노인회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회갑인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보통 60세를 노령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노부모는 노인이 된 부모 즉 청소년의 부모가 연로하여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 4. 現代 社會에 있어서의 老人扶養 問題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노인 인구의 양적 증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인간수명 연장으로 인한 80세 이상 고령 후기 노인들의 상대적 증가는 앞으로 이들을 모두 누가 부양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노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노인층의 문제로써, 노동의 상실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 능력 쇠퇴, 자주성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층의 문제로써, 노인에 대하여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서비스 부양이 각각 불충분하거나 완전 결여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의 사회학적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 셋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1) 人口 構造의 變化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은퇴한 시기부터 노후생활 기간을 연장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자녀만을 위해 헌신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6) 장인협, 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46.

노인부양 문제에서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노인 인구의 양적 증대이며, 둘째는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들의 상대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되었다.<sup>57)</sup> 인구 고령화란 총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sup>58)</sup>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선진국가들은 1985년도에 이미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보였으며 2025년에 가면 이미 20%를 넘어설 전망이다<sup>59)</sup>.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추세는 노인문제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전국의 평균보다 오히려 3~4년 더 일찍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표 1>에서 보듯이 1996년에 5.9%, 2005년에는 8.2%로 증가될 전망이다.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단위:천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5
노인인구	전국	2,643	2,660	2,885	2,990	3,168	3,956
	제주	34	36	37	40	41	49
비율(%)	전국	5.9	6.1	6.3	6.5	6.8	8.2
	제주	6.6	6.9	7.2	7.5	7.8	9.3

자료 : 통계청(1994),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통계청(1991), 「장래인구추계(1990-2001)」

57) U.N.(1984), "Aging and the Developing World", Populi, Vol. 11, No. 2, pp.13~20. ; 송경숙 (1990), "노인의 부양실태와 피부양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p. 7.에서 재인용.

58) 김태현(1994), 전계서, p. 3.

59) 상계서, p. 6.

그에 비해 제주도는 1996년에 6.6%, 1998년에 이미 7.2%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장수의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거니와 1994년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7,557명으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sup>60)</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제주도의 사회적 책임은 시급한 과제이다.

제주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을 <표 2>에서 보면, 65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1990년 5.7%이던 것이 1996년 6.3%, 2001년에는 6.8%로 1990년에 비해 2001년에는 노년인구의 전체인구 구성비가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68.8%에서 1996년 71.6%, 2001년에는 73.3%의 비율로 1990~2001년 기간동안 4.5% 상승하여 연도별 부양율은 1990년 45.3%에서 1996년 39.6%, 2001년에는 36.4%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생산인구가 노인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점차 크게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와서 노인부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이다.

<표 2> 제주도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

구분 \ 연도	1990	1996	2001	증감 (1990~2001)
0~ 14	25.5	22.1	19.9	▽5.6
15~ 29	32.6	30.2	26.9	▽5.7
30~ 49	25.4	28.6	32.5	7.1
50~ 64	10.8	12.8	13.9	3.1
65세이상	5.7	6.3	6.8	1.1
계	100.0	100.0	100.0	100.0
부 양 율	45.3	39.6	36.4	▽8.9
노령화 율	5.7	6.3	6.8	1.1
유년인구율	25.5	22.1	19.9	▽8.9

자료: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제주도(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주: <표>에서 통계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기관마다 인구추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60) 제주도(1996),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제주도, p. 21.



## 2) 家族 構造의 變化

현대사회는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변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크기가 작아지고, 친족집단이 지리적으로 분산될 뿐만 아니라 핵가족도 적은 수의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다. 편부모 가정, 무자녀 가정, 이혼 독신자 가정, 어린이만의 가정, 노인만의 가정 등 비표준 가정의 출현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핵가족의 특징인 자유결혼, 소가족, 기혼자녀와 부모의 별거, 신거제, 균배상속, 독립생계, 자녀의 부양책임 면책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 문제는 주로 물질적 복지에 중점을 둠으로써 세대간의 인간적, 사회적 유대의 단절을 가져와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sup>61)</sup> 최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부부 또는 노인 단독세대가 전체 노인의 7.0%에 불과했는데, 현재 그 비율은 28.0%로 증가하고 앞으로 2000년대 초에는 45.0%, 그리고 2010년에는 60.0%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62)</sup>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 행사하였던 노인의 절대적 지위와 권위는 무너지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반면, 노인들은 직계가족 내에서조차 고독감 내지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에 대한 보답이나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무능력자가 될 경우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자녀들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인 가족이 12.7%, 노부부만의 가족 41.2%로서 53.9%의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sup>63)</sup>, 제주도 일인가족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분거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안·밖거리 주거 구조에서 울타리 밖으로의 원거리로 분가해 나가는 데 그 문제가 있다.

61) 이영하(1975),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범대학교 논문집, 제3집, p. 201.

62) 박재간(1991), "노인과 지역사회", 제2회 노인복지 세미나, 한국노년학회, p. 9.

63) 김혜숙(1985), "제주도의 一가족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 p. 332.

### 3) 價値觀의 變化

과거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 왔다. 경로효친의 유교적 가치는 노인문제의 발생 여지를 봉쇄하는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다.<sup>64)</sup>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핵가족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거주지를 선택할 권한과 친족의 어떤 의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 등을 가지며, 특히 평등주의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가족구조 및 관계 변화로 전통적인 효의식이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의식이 강해져 노인은 자녀들로부터 소외감과 좌절감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인간적·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가치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윤진·조성미<sup>65)</sup>에 의하면, 노부모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재산, 종교, 가치관,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을 부정하거나 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의식구조와는 달리 젊은 자녀세대들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그들의 발달과업이라 생각함으로써 부모세대의 노력은 일종의 간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우미경<sup>66)</sup>의 연구에 의하면 노후는 자녀로부터 부양 받는 것을 절대 의무시하나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부양을 한다고 하여, 노후생활 보호의무가 아닌 생활부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책임은 노인 자신 또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고,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식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부모 부양의식이 점점 감퇴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64) 현외성(1983),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78.

65) 윤진·조성미(1980),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 노년학」, No.1, 한국노년학회, pp. 75~78.

66) 우미경(1988), "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 10.

결국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인간적, 사회적 단절을 가져오고 가치관의 변화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사상 또는 그와 관련된 관습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문제들은 노인들의 일상 생활면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老人 扶養의 形態

노인의 부양은 그 부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부양은 주로 사회 보장 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부양의 형태를 지칭한다. 사적 부양은 가족 부양과 자기 부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부양은 가족에 의한 생계유지 보호가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 와서 가족 부양은 산업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측면인 경제적 부양(Economic Support), 정서적 부양(Emotional Support) 및 신체서비스 부양(Physical Service Support)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1) 經濟的 扶養(Economic Support)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공급의 출처와 방법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뉘어진다. 공적 부양의 주된 형태는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 의한 연금, 보험, 공적원조 등 국가재정에 의한 경제적 보장이다. 사적 부양은 가족에 의한 경제적 부양이 그 주된 것이며 노인 스스로의 경제 활동에 의한 자활적 부양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67)</sup>

노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령층의 빈곤이 타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산업화된 모든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sup>68)</sup>

67) 김성순(1989), 「노인복지론」, 서울: 삼성출판사, p. 22.

68) 박재간(1991), 전계서, p. 10.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의 생활비를 대부분 자녀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급여나 생활 보장으로써의 공적 부양에 의해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보건사회부<sup>69)</sup>에 따르면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수급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노인의 1~1.2%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1%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갤럽조사<sup>70)</sup>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대다수인 78.2%가 현재의 생활비 마련을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 경우는 21.8%, 재산소득에서 얻는 경우가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숙<sup>71)</sup>의 연구에서도 자기 수입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은 61.3%이고 여자노인의 경우 73%가 생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병숙<sup>72)</sup>의 연구에서도 84.2%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15.8%만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노인 문제 조사<sup>73)</sup>에서 보면, 조사대상 노인의 44.5%가 자녀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지만 일을 해서 번다는 경우도 30.6%로 나타나고 있어, 스스로 자립해서 충당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제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역할로써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자립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반응이 71%로 나타나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한 자립 능력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았다.<sup>74)</sup>

노인들의 경제생활이 불안하고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우

69) 보건사회부(1992),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 보건사회부, p. 302.

70)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1984), 전계서, p. 41.

71) 이윤숙(1984), "노령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p. 149.

72)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 52.

73) 김태현(1994), 전계서, p. 104.

74) 제주도(1996), 전계서, p. 161.

리 나라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결혼 등에 모든 재력을 거의 다 충당하므로 노후를 위해 아무런 비축도 할 수 없게 되어, 심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조기 정년제의 실시 및 노후 보장 제도의 불비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까지 겹쳐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 2) 情緒的 扶養(Emotional Support)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위로해 주고, 또한 외로움과 고독, 불안을 달래주는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사람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점차로 쇠퇴해 가는 신체적 기능의 변화로 인한 행동 장애와 함께 이로 인한 불안,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을 들 수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sup>75)</sup>

노화에서 오는 노인의 공통적 성향으로 무력감, 불안, 퇴화, 과잉의존성, 내향성 등을 드는데 핵가족 제도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별거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소외감, 고독감을 가져오게 한다.<sup>76)</sup> 또한 급진적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경향에 의해 노인들은 가부장제가 하락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갈등 또는 세대적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갤럽조사<sup>77)</sup>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54%가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는 31.8%, 미국인의 경우는 37.9%인데, 이로써 본다면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년기부터 개인적 독립 생활이 습성화된 서구 노인들은 고독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 노인들은

75) 윤진(1986),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 308.

76) 최신덕(1980), "노인의 소외·고독문제", 아산사회복지재단, p. 20.

77) 한국갤럽조사(1984), 전개서, pp. 42~47.

전통적 가족주의가 몸에 배어 있고, 신·구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어서 부모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부양 받는 것과의 사이에 거리가 커서 좌절감이나 고독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up>78)</sup>

공적 부양에 의해서 노인 가족의 경제적 부양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구미 사회에서도 점차로 정서적 부양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79)</sup>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고립은 어느 정도 공적기관에 의해 처리될 수 있지만 고독의 감정은 해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 중 정서적 만족을 위한 원조의 필요성은 동·별거 또는 부양책임을 불문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존속하지 않을 수 없다. 박의연, 유영주의 연구에 의하면,<sup>80)</sup> 노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집단이 바로 노인이 속한 가족으로 나타나 가족들에 의한 정서적 부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3) 身體 서비스 扶養(Physical Service Support)

신체 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식사, 목욕, 세수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노인이 되면 생리·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나타나, 신체적 기관의 기능이 감퇴하고 통합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노후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신체적 노화와 질환 문제이다.

노인들의 질환은 주로 만성질환으로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으며, 급성환자일 경우라도 젊은이들보다 오랜 회복기간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자립성이 강한 노인이라도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는 누군가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34.8%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이웃이나 친지 등이 22.1%, 아들이 16.8%, 배우자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5%에 해당되는 노인에게는 전혀 시중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1)</sup>

78) 최신덕(1982), 전계서, pp. 24~25.

79) Skolnick, S.(1973), The Environment : Exploring Marriage and Family by William Stephens. Boston: Little Brown Co, p.85; 임한순(1992), 전계서, p. 12에서 재인용.

80) 박의연·유영주(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pp. 209~210.

노인의 수발 필요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sup>82)</sup>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에 44% 정도가 수발을 필요로 하고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80세 이전까지는 남자 노인의 수발 필요도가 낮으나 그 이후부터는 남자 노인이 더 수발 필요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90%가 식사 시중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세탁(89.0%), 의논·상담 대화상대(77.7%), 방청소·잠자리 정돈(77.2%), 잔심부름(67.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수발 담당자는 가족 성원이며, 그 중에서도 동거하고 있는 가족 성원 그리고 여자 성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노인가구 중에서 20.0%의 가구에는 노인의 수발을 담당할 가족 성원이 없거나 가족 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상 노인의 수발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 며느리가 34.9%로 주 수발 담당자로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이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3> 주 수발 담당자

노인과의 관계	n(%)	노인과의 관계	n(%)
수발자 없음	217(20.0)	동거 미혼자녀	43(4.0)
배우자	339(31.2)	별거 며느리	1(0.1)
동거 며느리	379(34.9)	동거 외손녀	20(1.8)
동거 기혼아들	7 (0.6)	친척	9(0.9)
동거 기혼딸	69 (6.4)	고용인	1(0.1)
계 : 1,085(100.0)			

자료 : 이가옥 외(1991), 家庭奉仕員制度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 김태현(1994), 전계서, p.110.

전통 사회에서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은 효도의 핵심적 실천덕목 중의 하나로써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핵가

81)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전계서, p. 174.

82) 김태현(1994), 전계서, pp. 108~110.

족화로 인한 부모-자녀간에 별거현상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게 되어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 기능은 약화되었다. 특히 장애나 병이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서비스 부양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 많은 부문에서 노인부양의 체계가 사적 형태에서 공적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노인들이 가장 고독하게 느끼는 야간의 간호는 가족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서비스는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지라도 불의의 사고나 질환 또는 노인과 관련된 축하연 등 가족적 행사에 필요한 가사 노동의 원조는 공적 기관에 의해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서비스 체제가 극히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는 노년인구의 신체 서비스 부양을 가족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앞으로 신체 서비스 부양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져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의식에 대한 재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 Ⅲ. 研究의 方法

이 연구는 질문지 조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측정도구,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調査 對象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34개 중·고등학교(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5개교)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은 연령에 변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조사대상 수는 1995학년도 제주도 내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 290명과 고등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총 560명을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라 노부모 부양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학생수의 비례에 따라 남녀 학생수의 비율을 절반씩으로 하였다. <표 4 참조>

<표 4> 1995학년도 제주도 중·고등학생수

구 분	지 역	지 역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 학 교	남	7,847	2,632	2,308	1,987	14,774
	여	7,379	2,518	2,234	1,971	14,102
	계	15,226	5,150	4,542	3,958	28,876
고 등 학 교	남	7,181	2,684	2,321	1,185	13,371
	여	6,179	2,748	2,778	1,280	12,985
	계	13,360	5,432	5,099	2,465	26,356

자료: <제주도 교육청(1995), 「제주도 교육 통계 편람」>

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뉘었다.

제주시 표집학교는 제주서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서귀포시는 서귀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고등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를, 북제주군은 애월중학교, 세화고등학교를, 남제주군 지역은 성산중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표집 대상자의 학교별, 성별, 지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 표집 대상자의 학교별, 성별, 지역별 분포 상황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학교명	표집수	학교명	표집수	학교명	표집수	학교명	표집수		
중	남	제주서중	75	서귀중	25	애월중	25	성산중	20	145
	여	제주서중	75	서귀중앙여중	25	애월중	25	성산중	20	145
	소계	150		50		50		40		290
고	남	제주일고	65	서귀고	25	세화고	25	대정고	20	135
	여	중앙여고	65	서귀포여고	25	세화고	25	대정여고	20	135
	소계	130		50		50		40		270
계	280		100		100		80		560	

## 2. 調査 期間

설문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로 1996년 2월 6일 제주서중 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996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2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적합하지 못한 문항은 삭제, 보완하여서 1996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본 조사를 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표집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560부가 회수되어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3. 測定 道具

측정 도구는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 의식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sup>83)</sup>들을 참고로 하고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의 내용과 문항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수

변 수	문 항 내 용	문항수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	성 연령 거주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구조 부모의 학력 부모의 종교	9문항
노부모에 대한 태도 및 책임 의식	노부모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2문항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2문항
노부모 부양 의식도	경제적 부양 의식도	10문항
	정서적 부양 의식도	10문항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10문항
계		43문항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은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노부모 부양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 출생 순위,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구조, 부모의 학력, 부모의 종

83) 김태현(1981), 전계서, pp. 109~112.

고경애(1990), 전계서, pp. 90~97.

한창영(1991), "대학생의 노인관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학생생활연구』 제13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교 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노부모에 대한 태도 및 책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와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종속변수 중 특히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 중 노인 부양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 강조되어 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김태현<sup>84)</sup>의 연구 논문을 기본으로 하고, 고경애<sup>85)</sup>가 사용하였던 조사 항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노부모 부양 의식도에 관한 문항은 3개 영역, 즉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를 하위 요인으로 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 기준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다.

각 영역별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전체 부양 의식도 점수는 30점에서 15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 의식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영역별로 각 10개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양 의식도 0.83, 정서적 부양 의식도 0.82,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0.8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부양 의식도의 신뢰도 계수는 0.84이다.

<표 7> 문항의 신뢰도 계수

구 분	신뢰도	cronbach' $\alpha$
경제적 부양 의식도		0.83
정서적 부양 의식도		0.82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0.86
전체 부양 의식도		0.84

84) 김태현(1981). 전계서, pp. 109~112.

85) 고경애(1990). 전계서, pp. 90~97.

#### 4. 資料 處理 및 分析 方法

자료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수에 따른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 의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 변량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했다. 그리고 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평균치의 개별 비교 방법 중 사후 비교 방법의 하나인 던컨의 다중범위 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Chi - Square)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結果 分析 및 論議

### 1. 調查 對象者의 一般적 背景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8>과 같다.

<표 8>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560

변 수	분 류	n	%	변 수	분 류	n	%
성 별	남	280	50.0	가옥 구조	독립(단독)주택	320	57.1
	여	280	50.0		집합 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160	28.6
연 령	중학생	290	51.8	부 의 학 력	안·밖거리형	59	10.5
	고등학생	270	48.2		기타	17	3.0
거주지	제주시	275	49.1	부 의 학 력	국졸 이하	45	8.0
	서귀포시	105	18.8		중졸	95	17.0
	북제주군	93	16.6		고졸	308	55.0
	남제주군	87	15.5		대졸 이상	104	18.6
출생순위	장남, 장녀	187	33.4	모 의 학 력	국졸 이하	116	20.7
	둘째	141	25.2		중졸	163	29.1
	막내	212	37.9		고졸	233	41.6
	외동	20	3.6		대졸 이상	38	6.8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동거중	106	18.9	부 의 종교	불교	268	47.9
	동거경험이 있다	230	41.1		개신교	28	5.0
	동거경험이 없다	220	39.3		천주교	58	10.4
부모의 양육태도	엄격하다	90	16.1	모 의 종교	없다	187	33.4
	보통이다	330	58.9		기타	14	2.5
	자유롭다	138	24.6		불교	317	56.6
				개신교	42	7.5	
				천주교	69	12.3	
				없다	109	19.5	
				기타	14	2.5	

※ 문항별 무응답수는 빈도수에서 제외시켰음.

표집 수는 560명으로 남학생 280명(50.0%), 여학생 280명(50.0%)이다. 연령별 분포는 중학생 290명(51.8%), 고등학생 270명(48.2%)이다.

거주지는 제주시 275명(49.1%), 서귀포시 105명(18.8%), 북제주군 93명(16.6%), 남제주군 87명(15.5%)으로 제주시 거주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순서이다.

출생 순위의 분포는 장남과 장녀가 33.4%, 둘째 25.2%, 막내가 37.9%, 외동이 3.6%로, 막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장남과 장녀, 둘째, 외동의 순이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동거중인 학생 18.9%와,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41.1%로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60.0%이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39.3%로 나타나 비교적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엄격한 가정이 16.1%, 보통인 가정 58.9%, 자유로운 가정 24.6%로 보통인 가정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옥구조는 독립주택이 57.1%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최근 제주도내에 증가된 집합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에 거주하는 학생은 28.6%나 차지했으나, 제주도 전통가옥 구조인 안·밖거리형에 거주하는 학생은 10.5%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국졸이하가 부:8.0%, 모:20.7%, 중졸이 부:17.0%, 모:29.1%, 고졸이 부:55.0%, 모:41.6%, 대졸이상이 부:18.6%, 모:6.8%로 나타나 고졸 이상이 아버지 73.6%, 어머니 48.4%로서 아버지의 학력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종교는 불교를 믿는 집안이 부:47.9%, 모:5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천주교로 부:10.4%, 모:12.3%이고, 개신교는 부:5.0%, 모:7.5%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교가 없는 학생도 부:33.4%, 모:19.5%로 나타났다.

## 2. 老父母 및 自身の 老後에 대한 態度 및 責任 意識

### 1) 老父母에 대한 扶養 態度 및 責任 意識

노부모에 대한 부양 태도 및 책임의식은 <표 9>와 같다.

<표 9> 노부모 부양 태도 및 책임 의식

n=560

변 수	분 류	n	%
노부모 부양 태도	동거 부양	366	65.4
	별거 부양	127	22.7
	모시고 싶지 않다	5	0.9
	모르겠다	61	10.9
노부모 부양 책임 의식	장남	59	10.5
	모든 아들	43	7.7
	모든 아들과 딸	250	44.6
	능력 있는 아들이나 딸	113	20.2
	부모가 원하는 자녀	59	10.5
	잘 모르겠다	36	6.5

함께 살면서 모시겠다는 학생이 6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따로 살며 도움을 드리겠다는 학생은 22.7%, 모르겠다는 학생 10.9%로 나타난 반면, 모시고 싶지 않다는 학생은 0.9%로 불과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노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양의 형태는 절반이상이 동거부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별거하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비율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식들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저야 한다는 학생이 4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능력있는 아들이나 딸 20.2%, 부모가 원하는 자녀 10.5%와 장남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학생 10.5%로 나타났다. 특히 장남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가 10.5%의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제주도 가족의 특징에서 오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제주도에서는 장남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노동력이 있는 한 분가해서 독립된 생활을 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장남 우선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있다는 공동책임 의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창영<sup>86)</sup>의 노인관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 있다.

86) 한창영(1991), 전제서, p. 47.



## 2) 自身の老後に 대한 態度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

n=560

변 수	분 류	n	%
자신의 노후에 대한 피부양 태도	동거 피부양	112	20.0
	별거 피부양	269	48.0
	기대하지 않겠다	107	19.1
	모르겠다	67	12.0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젊었을 때 저축	471	84.1
	가족, 자녀가 마련	54	9.6
	사회복지 제도	18	3.2
	기타	13	2.3

함께 살면서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은 20.0%에 불과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은 48.0%에 이르고 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학생도 19.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피부양을 기대하고 있으나 동거보다는 별거의 형태를 더 바라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한다는 학생이 8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족·자녀가 마련한다 9.6%, 사회복지 제도에 의존한다는 3.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한다는 답변을 보인 것을 보면, 앞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젊었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제도에 의존한다는 학생이 3.2%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복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다수가 자립 의지를 보이면서, 별거 상태에서 경제문제 이외의 것은 오히려 부양을 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문

제는 스스로 해결하겠지만, 정서적·신체 서비스 부양 부분은 가족체계내에서 기대하겠  
다는 것으로 보인다.

### 3. 背景 變因에 따른 老父母 扶養 意識度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도 점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소 30점에서 최고 15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전체 노부모 부양 의식도의 평균 점수는 127.82점으  
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표 11> 노부모 부양 의식도 점수

분 류	척도별 최소값	척도별 최대값	M	S.D.
경제적 부양 의식도	10	50	44.23	4.66
정서적 부양 의식도	10	50	40.48	5.74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10	50	43.07	5.44
전체 부양 의식도	30	150	127.82	13.84

부양형태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의 평균 점수는 경제적 부양 의식도 44.23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40.48점,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43.07점으로 경제적 부양 의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 정서적 부양 의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이 경제적 부양이고 특히  
제주도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나고<sup>87)</sup>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경제적 부양 의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1) 靑少年의 一般的 背景에 따른 老父母 扶養 意識度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표 12>와 같다.

87) 한창영(1978), 「제주도 노인 논고」, 제주:한일문화사, p. 121.

<표 12>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구분	부양 의식도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전체 부양 의식도					
	N	M	t, F	D	M	t, F	D	M	t, F	D	M	t, F	M	t, F	M	t, F					
성별	남학생	280	43.94	-1.52		40.72	0.97		42.74	-1.41		127.43	-0.67		280	44.54	40.25	43.40	128.22		
	여학생	280	44.54			40.25			43.40			128.22									
연령	중학생	290	43.88	-1.93		40.58	0.44		42.63	-1.99*		127.15	-1.15		270	44.63	40.37	43.55	128.52		
	고등학생	270	44.63			40.37			43.55			128.52									
지역	제주시	275	44.42	1.00		40.58	0.94		43.03	0.03		128.05	0.14		105	44.41	39.75	43.19	127.32		
	서귀포시	105	44.41			39.75			43.19			127.32									
	북제주군	93	43.48			40.45			43.11			127.31									
	남제주군	87	44.24			41.11			43.00			128.30									
출생순위	장남, 장녀	187	44.62	2.59*		a	40.37	1.64		43.34	0.65		128.23	1.29		141	43.81	b	39.82	42.73	126.37
	둘째	141	43.81			b	39.82			42.73			126.37								
	막내	212	44.40			a	41.11			43.16			128.74								
	외동	20	41.84			b	39.60			41.90			124.16								
조부모와 동거경험	동거 중	106	43.73	1.28		a	39.23	3.59*		a	42.67	0.35		125.61	1.99		230	44.15	a	43.19	127.80
	동거 경험 있다	230	44.15			a	43.19			127.80											
	동거 경험 없다	220	44.58			b	43.11			128.91											
부모 양육 태도	엄격하다	90	43.80	0.65		a	39.76	3.74*		a	42.85	0.45		126.26	2.00		330	44.41	b	43.26	128.85
	보통이다	330	44.41			b	43.26			128.85											
	자유롭다	138	44.15			a	42.78			126.56											
가옥 구조	독립주택	320	44.27	0.12		a	40.47	1.18		a	43.11	0.41		127.91	0.69		160	44.09	a	42.80	126.86
	집합주택	160	44.09			a	42.80			126.86											
	안·밖거리	59	44.39			a	41.36			43.53	129.27										
부의 학력	국졸 이하	45	44.13	1.15		a	41.22	0.45		a	43.40	0.52		128.75	0.57		95	43.54	a	42.47	126.30
	중졸	95	43.54			a	42.47			126.30											
	고졸	308	44.51			a	40.34			43.20	128.20										
	대졸 이상	104	44.37			a	40.86			43.27	128.45										
모의 학력	국졸 이하	116	44.06	0.57		a	40.28	0.60		a	42.83	0.27		127.23	0.24		163	44.65	a	43.36	128.61
	중졸	163	44.65			a	43.36			128.61											
	고졸	233	44.19			a	40.28			43.06	127.74										
	대졸 이상	38	43.92			a	41.39			42.73	127.80										
부의 종교	불교	268	44.40	0.12		a	40.91	0.93		a	43.21	0.19		128.63	0.49		28	44.25	a	42.82	127.18
	개신교	28	44.25			a	42.82			127.18											
	천주교	58	44.06			a	40.23			43.28	127.57										
	없다	187	44.23			a	40.05			42.86	127.11										
모의 종교	불교	317	44.46	0.32		a	40.87	0.74		a	43.15	0.64		128.56	0.56		42	44.34	a	42.62	127.19
	개신교	42	44.34			a	42.62			127.19											
	천주교	69	44.02			a	40.31			43.34	127.67										
	없다	109	44.15			a	40.19			42.77	127.14										

ex 1) \*P<.05

- 2) D는 Duncan의 다중 범위검증 (\* P<.05)을 말하며, a, b, c 서로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 3) 성별과 연령은 t값이고, 나머지는 F값임

전체 노부모 부양 의식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으나, 부양 형태별로는 경제적 부양 의식도에서 출생 순위, 정서적 부양 의식도에서 조부모와 동거 경험과 부모의 양육 태도,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에서는 연령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부양 의식도에서는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남, 장녀가 44.62점, 둘째 43.81점, 막내 44.40점, 외동이 41.84점으로, 첫자녀인 장남·장녀가 그 외의 자녀보다 가장 높고, 외동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sup>88)</sup>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장남·장녀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책임 의식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부양 의식도에서는 조부모와 동거 경험에서 동거 중인 학생이 39.23점, 동거 경험이 있다가 40.49점, 동거 경험이 없다가 41.05점으로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노부모 부양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엄격하다는 학생이 39.76점, 보통이다 41.05점, 자유롭다는 학생이 39.66점으로 보통의 분위기에서 자라는 학생이 엄격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에서는 중학생 42.63점, 고등학생이 43.55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옥 구조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 전통적인 가옥구조인 안·밖거리 유형에 사는 노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sup>89)</sup> 청소년들의 노부모 부양 의식에서는 다른 형태의 주택구조에서 생활하는 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8) 서병숙(1986), 전계서, p. 63.

임인혜(1987), 전계서, p. 30.

고경애(1990), 전계서, p. 44.

89) 한창영(1983), 전계서, p. 166.

김혜숙(1984), 전계서, p. 141.

## 2) 扶養 態度에 따른 老父母 扶養 意識度

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표 13>와 같다.

<표 13> 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구 분	부양 의식도 N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전체 부양 의식도			
		M	F	D	M	F	D	M	F	D	M	F	D				
동거 부양	366	44.90		a	41.75		a	44.21		a	130.88		a				
별거 부양	127	43.90		b	39.15		b	41.81		b	124.94		b				
모시고 싶지 않다	5	42.00	12.99***	c	36.00	25.40***	c	37.60	21.16***	c	115.60	26.06***	c				
모르겠다	61	41.11		c	35.78		c	39.23		c	116.02		c				

\*\*\* P<.001

전체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이 130.88점, 따로 살며 도움을 드리겠다는 학생 124.94점, 모시고 싶지 않다는 115.60점, 모르겠다 116.02점으로 나타나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이 노부모 부양 의식이 가장 높고, 모시고 싶지 않다는 학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P<.001의 높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양 형태별로는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이 경제적 부양 의식도 44.90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41.75점,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44.21점으로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3) 扶養 責任 意識에 따른 老父母 扶養 意識度

부양 책임 의식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표 14>와 같다.

<표 14> 부양 책임의식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구 분	부양 의식도 N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전체 부양 의식도		
		M	F	D	M	F	D	M	F	D	M	F	D
장남	59	44.75		a	40.41		a	42.81		a	126.84		a
아들이 공동으로	43	44.95		a	41.53		c	43.97		c	130.46		c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250	44.42		a	41.02		c	43.57		c	129.11		c
능력 있는 아들이나 딸	113	43.92	3.74**	a	38.85		a	41.84	4.23***	a	124.56	4.69***	a
부모가 원하는 자녀	59	45.60		b	41.75		c	44.46		c	131.75		c
잘 모르겠다	35	41.66		c	38.53		a	40.47		a	120.88		a

\*\* P<.01 \*\*\* P<.001

전체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학생이 131.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든 아들이 공동으로 모셔야 한다 130.46점, 모든 아들과 딸이 모셔야 한다 129.11점, 장남이 전적으로 모셔야 한다 126.84점, 능력있는 아들이나 딸이 모셔야 한다 124.56점의 순서로 나타나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120.88점으로 노부모 부양 의식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입장에서 향후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모시고 싶지 않다'는 책임 의식이 희박하면서도 그렇게 응답할 만큼 강한 거부 유형도 아닌 성향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부양 형태별로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학생이 경제적 부양 의식도 45.60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41.75점,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44.46점으로 가장 높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경제적 부양 의식도 41.66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38.53점,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40.47점으로 가장 낮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정서적 부양 의식면에서는 P<.01의 수준에서,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면에서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自身の老後被扶養態度에 따른 老父母扶養意識度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표 15>와 같다.

<표 15>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구 분	부양 의식도 N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서비스 부양 의식도			전체 부양 의식도		
		M	F	M	F	D	M	F	D	M	F	D
동거 피부양	112	44.99		42.62		a	44.20		a	131.78		a
별거 피부양	269	44.31		40.14		b	42.93		b	127.33		b
기대하지 않겠다	107	44.06	1.62	39.01	8.56***	b	42.62	2.06*	b	125.81	3.98**	b
모르겠다	67	43.55		41.08		c	42.63		b	127.56		b

\*\* P<.01 \*\*\* P<.001

전체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이 131.78점, 따로 살며 부양 받고 싶다 127.33점, 기대하지 않겠다 125.81점, 모르겠다 127.56점으로 나타나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신의 노후 피부양에 대해 기대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도 노부모에 대해 부양을 잘 하겠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대하지 않겠다는 학생은 노부모 부양 의식도 점수 또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양 형태별로는 정서적 부양 의식에서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이 42.62점으로 가장 높고, 기대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39.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P<.001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 서비스 부양면에서도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이 44.20점으로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老後生活費 마련 方法에 따른 老父母扶養意識度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표 16>와 같다.

<표 16>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에 따른 노부모 부양 의식도

구분	부양 의식도			경제적 부양 의식도				정서적 부양 의식도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전체 부양 의식도		
	N	M	F	D	M	F	D	M	F	D	M	F	D			
젊었을 때 저축	471	44.59		a	40.68		a	43.35		a	128.60		a			
가족·자녀가 마련	54	42.96	13.05 <sup>***</sup>	b	40.30	3.98 <sup>*</sup>	a	42.52	10.83 <sup>***</sup>	a	126.15	9.58 <sup>***</sup>	a			
사회복지제도	18	39.41		c	36.83		b	37.44		b	114.18		b			

\* P<.05 \*\*\* P<.001

전체 부양 의식도는 젊었을 때 저축하며 마련한다 128.60점, 가족·자녀가 마련한다 126.15점,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한다 114.18점으로써 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한다는 학생이 노부모 부양 의식도가 가장 높고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한다는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양 형태별로는 세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한다는 학생이 경제적 부양 의식도 44.59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40.68점,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43.35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한다는 학생은 경제적 부양 의식도 39.41점, 정서적 부양 의식도 36.83점,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 37.44점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靑少年의 一般的 背景에 따른 老父母 扶養 및 自身の 老後 被扶養 態度

##### 1) 靑少年의 一般的 背景에 따른 老父母 扶養 態度

靑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태도의 차이를  $\chi^2$  검증한 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7>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노부모 부양 태도

n(%)

구 분	노부모 부양태도		동거 부양	별거 부양	모시고 싶지않다	모르겠다	계	x <sup>2</sup> 값 자유도 유의수준
	남	여						
성 별	남		203(72.5)	49(17.5)	1(0.4)	27(9.6)	280(50.1)	x <sup>2</sup> =13.60** df =3
	여		163(58.4)	78(28.0)	4(1.4)	34(12.2)	279(49.9)	
연 령	중학생		189(65.6)	66(22.9)	2(0.7)	31(10.8)	288(51.6)	x <sup>2</sup> =0.30 df =3 n.s.
	고등학생		176(65.2)	61(22.6)	3(1.1)	30(11.1)	270(48.4)	
거 주 지	제주시		175(63.6)	72(26.2)	2(0.7)	26( 9.5)	275(49.2)	x <sup>2</sup> =7.07 df =9 n.s.
	서귀포시		72(68.6)	20(19.0)	0(0.0)	13(12.4)	105(18.8)	
	북제주군		61(65.6)	18(19.4)	2(2.2)	12(12.9)	93(16.6)	
	남제주군		58(67.4)	17(19.8)	1(1.2)	10(11.6)	86(15.4)	
출생순위	장남, 장녀		121(65.1)	52(28.0)	0(0.0)	13( 7.0)	186(33.3)	x <sup>2</sup> =13.43 df =9 n.s.
	둘째		92(65.2)	29(20.6)	3(2.1)	17(12.1)	141(25.2)	
	막내		139(65.6)	41(19.3)	2(0.9)	30(14.2)	212(37.9)	
	외동		14(70.0)	5(25.0)	0(0.0)	1( 5.0)	20( 3.6)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동거중		73(68.9)	21(19.8)	1(0.9)	11(10.4)	106(19.1)	x <sup>2</sup> =5.85 df =6 n.s.
	동거한 적 있음		153(66.8)	47(20.5)	3(1.3)	26(11.4)	229(41.3)	
	동거경험이 없음		138(62.7)	59(26.8)	0(0.0)	23(10.5)	220(39.6)	
부모 양육 태도	엄격하다		60(66.7)	18(20.0)	4(4.4)	8( 8.9)	90(16.1)	x <sup>2</sup> =22.16** df =6
	보통이다		221(67.0)	79(23.9)	1(0.3)	29( 8.8)	330(59.1)	
	자유롭다		85(61.6)	30(21.7)	0(0.0)	23(16.7)	138(24.7)	
가옥구조	독립 주택		212(66.3)	70(21.9)	2(0.6)	36(11.3)	320(59.0)	x <sup>2</sup> =5.70 df =9 n.s.
	집합 주택		96(60.0)	44(27.5)	1(0.6)	19(11.9)	160(29.5)	
	안·밖거리형		42(72.4)	10(17.2)	1(1.7)	5( 8.6)	58(10.7)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3(73.3)	7(15.6)	0(0.0)	5(11.1)	45(11.1)	x <sup>2</sup> =9.14 df =12 n.s.
	중졸		68(71.6)	18(18.9)	0(0.0)	9( 9.5)	95(17.2)	
	고졸		192(62.5)	76(24.8)	4(1.3)	35(11.4)	307(55.5)	
	대졸이상		69(66.3)	24(23.1)	1(1.0)	10( 9.6)	104(18.8)	
모의 학력	국졸 이하		82(71.3)	20(17.4)	1(0.9)	12(10.4)	115(20.9)	x <sup>2</sup> =5.31 df =9 n.s.
	중졸		108(66.3)	35(21.5)	1(0.6)	19(11.7)	163(29.7)	
	고졸		148(63.5)	60(25.8)	2(0.9)	23( 9.9)	233(42.4)	
	대졸 이상		23(60.5)	9(23.7)	1(2.6)	5(13.2)	38( 6.9)	
부의 종교	있다		242(65.9)	87(23.7)	4(1.1)	34( 9.3)	367(66.2)	x <sup>2</sup> =3.36 df =3 n.s.
	없다		121(64.7)	39(20.9)	1(0.5)	26(13.9)	187(33.8)	
모의 종교	있다		289(65.5)	105(23.8)	4(0.9)	43( 9.8)	441(80.2)	x <sup>2</sup> =3.55 df =3 n.s.
	없다		70(64.2)	21(19.3)	1(0.9)	17(15.6)	109(19.8)	

\*\*P<.01

성별에 대해서는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남학생이 72.5%로 여학생 58.4%보다 더 많고, 따로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은 여학생이 28.0%로 남학생 17.5%보다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노부모와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은 엄격하거나 자유로운 편에서 자라는 학생보다 보통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학생이 67.0%의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靑少年의 一般의 背景에 따른 自身の 老後 被扶養 態度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의 차이를  $\chi^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조부모와 동거경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은 남학생이 25.9%로 여학생 14.4%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거 부양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로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별거 부양 형태를 원하는 학생은 여학생이 51.3%로 남학생 45.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겠다는 여학생이 23.5%로 남학생 15.1%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자립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노후에 별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제주도 여성의 특성인 자립심을 청소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서도 특히 여성 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감안할 때 여학생들이 노후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식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후 피부양 태도면에서 함께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은 중학생이 25.9%로 고등학생 13.8%보다 더 높고, 따로 살며 부양받고 싶다는 학생은 고등학생이 51.5%로 중학생 45.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학생 역시 고등학생 25.4%, 중학생 13.6%로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갈수록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표 18>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n(%)

구 분		노후 피부양 태도				계	$\chi^2$ 값 자유도
		동거 피부양	별거 피부양	기대하지 않 겠 다	모르겠다		
성 별	남	72(25.9)	127(45.7)	42(15.1)	37(13.3)	278(50.1)	$\chi^2 = 15.65^{**}$ df = 3
	여	40(14.4)	142(51.3)	65(23.5)	30(10.8)	277(49.9)	
연 령	중학생	74(25.9)	131(45.8)	39(13.6)	42(14.7)	286(51.6)	$\chi^2 = 24.13^{***}$ df = 3
	고등학생	37(13.8)	138(51.5)	68(25.4)	25(9.3)	268(48.4)	
거주지	제주시	60(21.9)	137(50.0)	51(18.6)	26(9.5)	274(49.4)	$\chi^2 = 10.38$ df = 9 n.s.
	서귀포시	15(14.6)	52(50.5)	21(20.4)	15(14.6)	103(18.6)	
	북제주군	20(21.7)	38(41.3)	23(25.0)	11(12.0)	92(16.6)	
	남제주군	17(19.8)	42(48.8)	12(14.0)	15(17.4)	86(15.5)	
출생 순위	장남, 장녀	32(17.4)	98(53.3)	33(17.9)	21(11.4)	184(33.2)	$\chi^2 = 5.46$ df = 9 n.s.
	둘째	30(21.3)	67(47.5)	29(20.6)	15(10.6)	141(25.4)	
	막내	46(21.8)	97(46.0)	39(18.5)	29(13.7)	211(38.0)	
	외동	4(21.1)	7(36.8)	6(31.6)	2(10.5)	19(3.4)	
조부모와 동거 경험	동거중	15(14.3)	43(41.0)	29(27.6)	18(17.1)	105(19.1)	$\chi^2 = 13.58^*$ df = 6
	동거한 적 있음	53(23.3)	117(51.5)	35(15.4)	22(9.7)	227(41.2)	
	동거 경험 없음	44(20.1)	108(49.3)	42(19.2)	25(11.4)	219(39.7)	
부모 양육 태도	엄격하다	23(26.1)	38(43.2)	18(20.5)	9(10.2)	88(15.9)	$\chi^2 = 3.72$ df = 6 n.s.
	보통이다	60(18.2)	167(50.8)	61(18.5)	41(12.5)	329(59.5)	
	자유롭다	29(21.3)	63(46.3)	27(19.9)	17(12.5)	136(24.6)	
가옥 구조	독립 주택	63(19.8)	152(47.8)	64(20.1)	39(12.3)	318(59.1)	$\chi^2 = 14.03$ df = 9 n.s.
	집합 주택	29(18.5)	88(56.1)	25(15.9)	15(9.6)	157(29.2)	
	안밖거리형	14(23.7)	21(35.6)	15(25.4)	9(15.3)	59(11.0)	
부의 학력	국졸 이하	9(20.5)	20(45.5)	11(25.0)	4(9.1)	44(8.0)	$\chi^2 = 7.18$ df = 12 n.s.
	중졸	18(18.9)	44(46.3)	19(20.0)	14(14.7)	95(17.3)	
	고졸	61(19.9)	154(50.3)	56(18.3)	35(11.4)	306(55.7)	
	대졸 이상	23(22.3)	47(45.6)	19(18.4)	14(13.6)	103(18.8)	
모의 학력	국졸 이하	23(20.0)	54(47.0)	29(25.2)	9(7.8)	115(21.1)	$\chi^2 = 7.96$ df = 9 n.s.
	중졸	34(21.0)	81(50.0)	27(16.7)	20(12.3)	162(29.7)	
	고졸	47(20.3)	113(48.9)	38(16.5)	33(14.3)	231(42.3)	
	대졸 이상	6(15.8)	17(44.7)	10(26.3)	5(13.2)	38(7.0)	
부의 종교	있다	76(20.9)	175(48.2)	66(18.2)	46(12.7)	363(66.0)	$\chi^2 = 1.18$ df = 3 n.s.
	없다	35(18.7)	91(48.7)	40(21.4)	21(11.2)	187(34.0)	
모의 종교	있다	86(19.7)	220(50.3)	82(18.8)	49(11.2)	437(80.0)	$\chi^2 = 2.91$ df = 3 n.s.
	없다	23(21.1)	46(42.2)	23(21.1)	17(15.6)	109(20.0)	

\*P<.05 \*\*P<.01 \*\*\*P<.001

조부모와 함께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금 동거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보다 부분적으로 부양을 기대하겠다는 비율이 5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는 지금 동거 중에 있는 학생이 27.6%로 동거한 적이 있거나,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부양 기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老父母 扶養 態度와 自身の 老後 被扶養 態度와의 關係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9>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와의 관계

n(%)

노부모 부양 태도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노부모 부양 태도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		계	$\chi^2$ 자유도
	동거 부양	별거 부양	모시고 싶지않다	모르겠다		
동거 피부양	103(92.0)	3(2.7)	1(0.9)	5(4.5)	112(20.2)	$\chi^2 = 78.41^{***}$ df = 9
별거 피부양	149(55.6)	92(34.3)	3(1.1)	24(9.0)	268(48.4)	
기대하지 않겠다	69(64.5)	23(21.5)	1(0.9)	14(13.1)	107(19.3)	
모르겠다	42(62.7)	7(10.4)	0(0.0)	18(26.9)	67(12.1)	
계	363(65.5)	125(22.6)	5(0.9)	61(11.0)	554(100.0)	

\*\*\* $P < .001$

함께 살며 부양받고 싶다는 학생은 노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살며 모시겠다 92.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따로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과 기대하지 않겠다는 학생도 노부모에 대해서는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제주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후는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노부모는 함께 살며 부양을 하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結 論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구 이동이 격화됨에 따라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노인 문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산업화 이전부터 이미 핵가족의 형태를 취해 왔지만, 오늘날 노년학에서 가장 이상적 주거형태로 추천되고 있는 별거의 형식을 취하면서 동거하는 관습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는 형성됨으로써 가족 보호라는 면에서 이미 노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고 김태현<sup>90)</sup>이 주장하였듯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적었다.

그러나 생활권이 확대되고,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가족 가치관이나 청소년의 의식이 변화되어 가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도 노인 부양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노부모 부양 체계의 유지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老父母 扶養 意識度

노부모 부양 의식에 있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도가 더 높았다. 출생순위는 둘째나 외동보다 장남·장녀와 막내가 경제적 부양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동거 경험이 없는 학생이 오히려 정서적 부양 의식도가 더 높았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엄격하거나 자유로운 가정의 자녀보다 보통인 가정의 청소년이 정서적 부양 의식도가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노부모와 같이 살며 모시겠다는 학생이 경제적,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의식면에서

90) 김태현(1980).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1호, 대한가정학회, p. 99.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부양 의식을 보였다. 노부모 부양 책임은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경제적,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면에서 전반적으로  
노부모 부양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노후에 같이 살며 부양 받고 싶다는 학생이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면  
에서 더 높은 부양 의식을 보였고, 노후 생활비는 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경제적,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 의식 전반적인 면에서 더  
높은 부양 의식을 보였다.

## 2) 老父母 및 자신의 老後에 대한 態度

노부모 부양 태도는 대부분의 학생이 노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였고, 부양의 형태는  
절반 이상이 같이 살며 부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엄격하거나  
자유로운 가정보다는 보통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같이살며 모시겠다고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노부모 부양 책임은 장남 우선 의식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의 책임이라는 공동책임 의식을 보였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는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양받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동거보다는 별거 형태의 부양을 더 바라는 추세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  
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금 동거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조부모와 동거한  
적이 있는 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노후 생활비 마련도 젊었을  
때 마련하겠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즉 청소년들은 노후에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하  
겠지만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면에서는 부양받기를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앞으로 노인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양은 공적·사적인 어떤 형태로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정서적, 신체 서비스 부양면에서는 가족 부양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老父母 扶養 態度와 自身の 老後 被扶養 態度와의 關係

노부모 부양 태도와 자신의 노후 피부양 태도의 관계에서는 피부양 기대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함께 살며 부양받고 싶다는 학생은 노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살며 모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을 할 자녀수의 감소와 가족 유대감의 약화로 인해 노인 부양은 가족 부양에만 의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산업 사회가 진전될수록 부모가 자식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적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 의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청소년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동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노인 부양의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가족들이 져야할 것이지만, 전통적인 부양 형태가 새롭게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하며 앞으로 노인 문제는 가족자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반드시 공적 체계의 부양방법이 뒤따라야 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전체적인 부양 의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부양 형태 중에서 정서적 부양 의식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은 앞으로 공적 부양 체계가 확립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 소외감은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여겨진다. 가족 부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 자녀와 노인 세대가 같이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구세대의 의견 차이와 스트레스,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부양을 책임질 성인 자녀와 노인 세대와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주택 모형이 필요하다. 제주도 전통가옥 구조인 안·밖거리 모형은 이러한 부양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정서적 부양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체 서비스 부양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주택구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독주택 및 집합주택에서도 제주도 전통가옥인 안·밖거리의 개념을 도입한 주택구조를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노인 부양에 있어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큰 원인이 가치관의 변화에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학생들에게 노인을 위한 봉

---

사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체험을 통한 경로 사상의 양양, 효행 학생에 대한 포상 등을 함으로써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넷째, 현대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노부모 부양자이면서 본인도 결국은 노인이 될 것이므로 노후에 대한 제반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은 교육여하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고도 의식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 그들 앞에 열려진 미래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계성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환국(1975), 「한국 도덕교육의 이론적 기저」, 법문사.
- 고영복(1979), 「한국 노인세대와 노인문화」, 서울:한국노인연구소.
- 김성순(1984), 「노인들은 일을 원한다」, 서울:중앙일보사.
- 김성순(1989), 「노인복지론」, 서울:삼성출판사.
- 김태현(1994), 「老年學」, 敎文社.
- 김정휘(1984),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 서병숙(1993), 「老人研究」, 敎文社.
- 유영주(1986),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 윤진(1991), 「성인,노인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광규(1992), 「가족과 친족」, 일조각.
- 이춘재 외(1993), 「청년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형득 편저(1994), 「상담이론」, 교육과학사.
- 장병림(1978), 「청년 심리학」, 서울:법문사.
- 정인석(1988), 「신 청년심리학」, 서울:대왕사.
- 장인협,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제주도(1996),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제주도.
- 한남제(1989), 「현대 한국가족 연구」, 서울:일지사.
- 한창영(1978), 「濟州道老人論考」, 濟州:韓一文化社.
- 한창영(1983), 「敬老思想과 老人福祉」, 濟州:韓一文化社.
- 현용준(1986), 「濟州島 巫俗研究」, 집문당.
- D.K.Harris/W.E.Cole(1985), 「노년사회학(Social of Aging)」, 최신태 역, 경문사.
- Rolf. E. Abtm(1981), 「청소년 이론」, 송중두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 고경애(1990), “한국 청소년의 老人 扶養意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필선(1988),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은옥(1989),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애연(1989), “노인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태현(1980), “제주도의 노인생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1호(통권 제40호).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태현, 전길량(1992), “노인의 가족부양과 모녀관계 고찰”, 「생활문화연구」, 제6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 김혜숙(1984),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4호.
- 박의연, 유영주(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 박재간(1991), “노인과 지역사회”, 「노인과 지역사회」, 제2회 노인복지 세미나, 한국노년학회.
-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 부양지능”, 「한국노년학」, No. 5. 한국노년학회.
- 박정은(1990),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기초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8-3.
- 박준희(1971), “서울 시민의 자녀 교육 태도 孝”, 「논총」, 제17집.
- 서병숙(1986), “노후 부모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No 6.
-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손용섭(1992), “노인부양 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송경숙(1990), “노인의 부양실태와 피부양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섭중(1991), “지방자치제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방안”, 『노인과 지역사회』, 제2회노인복지세미나, 한국노년학회.
- 우미경(1988), “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 윤진·조성미(1980),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No.1. 한국노년학회
- 이가옥(1989),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세미나,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가옥 외(1991), “가정봉사원 제도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신숙(1995), “현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과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 학회지』, 제7권, 제1호.
- 이영하(1975),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제13집.
- 이윤숙(1984), “노령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편.
- 이효재, 여순, 박민자(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노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종권 외 4인(1984),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임한순(1992), “농촌 청소년의 老人 扶養意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선경(1993), “한국 사회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라전문대학 논문집』, 제 17호.
- 정세구(1985), “경로효친과 현대 윤리와의 갈등과 그 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정영숙(1990),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궁호(1979), “현대 한국 청년의 정체의식”, 「청년연구」 제2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 논문집 제9집.
- 최신덕(1980), “노인의 소외·고독문제”, 아산사회복지재단.
- 최신덕(1982),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세미나 보고서」.
- 최춘혁(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창영(1991), “대학생의 노인관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학생생활연구」, 제13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현외성(1983), “한국 노인 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선옥(1993), “서울지역 청장년층들의 老人 扶養意識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통계청(1992), 「장래인구추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세계 6개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조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6), “노인세대(결손가정)조사 연구 보고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 노인의 생활실태”, 서울:한국인구보건연구원.

---

<Abstract>

A Study on Youths' Attitude toward Their Support of Aged Parents

- Sampling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

Shin, Soon-Sun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 and possibilities of supporting system development for the old and to suggest some basic data to help set up an education system to enhance consideration for the old and to help establish a welfare policy for the solving old age's problems.

The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depending on youths' backgrounds?
2. What are the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and toward being supported depending on youths' backgrounds?
3. What are the relations of the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and toward being supported in their old age?

This survey has been performed by questionnaires with 290 middle school students and 270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instrument is Likert's system of 5 step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program.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7.

---

Chi-square,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The whole degree of attitude toward support was relatively high, showing 127.82 out of the total 150 marks. Variables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re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ing parents, attitude toward being supported and the way of making a living in their age.

As for the types of support, economic support is the highest, physical service support is the second highest and emotional support is the third.

Variables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re, the order of birth,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ing parents, and the way of making a living in their age in economic supports.

Variables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re type of home education, attitude toward living with grand parents,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ing parents, attitude toward being supported and the way of making a living in their age in emotional support.

Variables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re school attitude toward living with grand parents,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ing parents, attitude toward being supported and the way of making a living in their age in physical service support.

2) The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and Toward Being Supported

The attitude toward support of the old are positive and the attitude differences toward support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epending on sex, type of home education.

Most of all the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mselves and self-reliance. The attitude differences toward being supported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epending on sex, school and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 parents.

3) Relations of the Attitude Toward Support of Aged Parents and Toward Being Supported

As the students expects more to be supported, they think of support of aged

---

parents as positive.

Some suggestions for the satisfactory support of aged parents are as follows:

Som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old should be made in the individual, family and national dimensions. Support method, which can form a emotional bond between grown-up offsprings and the old, should be developed and popularized.

Youth, supporter for the aged in the future, should prepare against being supported because they should grow old.

---

# 부 록





※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때 노부모 부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4. 부모가 연로하시게 되면 어떻게 모셔 드리겠습니까?

- ①함께 살면서 모시겠다                      ②따로 살면서 모시겠다
- ③모시고 싶지 않다                            ④모르겠다

5. 부모의 부양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장남이 전적으로                            ②모든 아들이 공동으로
- ③모든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④능력 있는 아들이나 딸
- ⑤부모가 원하는 자녀                      ⑥잘 모르겠다
- ⑦기타(    )

※다음은 학생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 학생이 노인이 된다면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를 기대합니까?

- ①함께 살면서 부양 받고 싶다.              ②따로 살면서 부양 받고 싶다.
- ③기대하지 않겠다                            ④모르겠다

7.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젊었을 때 저축하여 마련한다              ②가족, 자녀가 마련한다
- ③사회복지 제도에 의존한다.                ④기타(    )

※ 다음은 학생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 란에 “√”표 하세요.

8. 경제적 부양에 대하여

문항	내용	정말	대체로	그저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노부모님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겠다.					
2	생활에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도 노부모님께 용돈을 반드시 드리겠다.					
3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리겠다.					
4	금전문제로 노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노부모님을 위해 되도록 양보하겠다.					
5	노부모님이 외출하시고자 할 때 돈이 넉넉한지 반드시 여쭙겠다.					
6	노부모님이 원하시는 여행이나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돈을 저축하겠다.					
7	노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다.					
8	노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약간의 용돈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9	노부모님이 관혼상제에 참가하실 때 부의금이나 축의금이 있으신 지 신경을 쓰겠다.					
10	노부모님의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리겠다.					

9. 정서적 부양에 대하여

문항	내용	정말	대체로	그저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노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자주 시간을 내어 말동무를 해 드리겠다.					
2	노부모님이 자식들로 인해 서운해 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겠다.					
3	나의 배우자와 노부모님이 대립할 경우 노부모님을 위해 양보하도록 배우자를 설득하겠다.					
4	노부모님이 필요없는 잔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들은 후 공손히 대답하겠다.					
5	노부모님이 자식들의 일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더라도 가능한한 참고 들어 드리겠다.					
6	노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낯은 방식을 고집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다.					
7	노부모님이 하루 종일 무엇으로 소일하고 계신 지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					
8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노부모님과 상의하겠다.					
9	노부모님이 이웃집 노인들을 집에 자주 모셔와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잘 대접해 드리겠다.					
10	쓸모 없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노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도 그 물건을 되도록 소중히 여기겠다.					

10. 신체적 서비스 부양에 대하여

문항	내용	정말	대체로	그저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노부모님이 집안에서 하시는 가사일이 과중하진 않은지 신경을 쓰겠다.					
2	노부모님이 손자녀 돌보는데 힘들지 않으신지 신경을 쓰겠다.					
3	가족끼리의 외식이나 여행시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가겠다.					
4	노부모님이 길모르는 친척집이나 친구집을 방문하시고자 할 때는 모셔다 드리겠다.					
5	되도록 노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하겠다.					
6	노부모님이 요구하는 잔심부름을 잘 해 드리겠다.					
7	노부모님의 더러워진 의복이나 이부자리를 자주 빨아 드리겠다.					
8	노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자주 잠자리를 돌봐 드리겠다.					
9	노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밤을 세워서라도 간호해 드리겠다.					
10	병석에 눕게되면 노부모님의 수발(목욕, 대소변처리)을 잘 들어 드리겠다.					

※다음은 학생 자신에 대해 묻겠습니다.

11. 학생의 성별은? : ①남                      ②여
12. 학생의 학교는? :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13. 학생이 거주하는 곳은?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③북제주군    ④남제주군
14. 형제자매중 학생의 출생 순위는?  
①첫자녀    ②중간            ③막내            ④외동
15. 부모님의 학력은?  
부:①국졸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이상  
모:①국졸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이상
16. 부모님의 종교는?  
부:①불교    ②개신교    ③천주교    ④없다    ⑤기타(    )  
모:①불교    ②개신교    ③천주교    ④없다    ⑤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